

Metallica 곡 분석 - Orion 중심으로 -

이종웅,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pluto7426@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nalysis of Metallica Song - Orion -

Jong-Woong Lee,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Bass 연주자들이 다양한 연주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 대체적으로 Metal음악은 대중들에게 ‘시끄러운 음악, 듣기 불편한 음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Metal이라는 곡을 자세히 분석하여 들어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화성학적 기법이나 멜로디가 보이며,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빠른 템포의 Metal만 존재하는게 아닌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곡도 있으며 악기들의 다양한 이펙팅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Thrash Metal 밴드 ‘Metallica’의 3집 앨범 수록곡인 ‘Orion’을 분석하였다. 평소 저음역대를 받쳐주는 Bass의 다양한 멜로디 라인과 이펙팅 시스템의 사용 예시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Bass로도 멜로디를 만들어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밴드 Metallica는 이전에 나왔던 Thrash Metal밴드와는 달리 획기적인 사운드, 곡의 구성, 사운드 메이킹으로 수많은 이들의 인식이 되었으며, 특히 Guitar의 멜로디 라인과 화성학적 구성으로 인하여 메탈 곡은 단순하다 라는 편견을 깨고 다양한 곡을 발매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연주곡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있던 메탈밴드들에게도 연주곡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Metallica의 연주곡은 특히나 클래식 연주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구성과 멜로디 메이킹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에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곡을 작곡할 때 어떤식으로 작곡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Metallica의 연주곡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악보를 통하여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초창기 Metallica는 앨범마다 1트랙씩 연주곡을 구성하였는데 여러 연주곡들이 있지만 특히 3집 Master of Puppets의 수록 연주곡 ‘Orion’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

유는 다름 아닌 두 번째 베이스리스트 ‘Cliff Burton’의 유작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Cliff는 1986년 9월 27일 3집 ‘Master of Puppets’의 유럽 투어 중 스톡홀름에서 공연을 마친 후 이동 중 버스 추락사고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그 당시 Metallica의 멤버들 중 특출나게 화성학에 관한 지식이 상당하였으며 보통 곡의 저음역대를 받쳐주는 악기로 인식된 Bass의 고정관념을 깨고 Overdrive, Fuzz, Wah등 이펙터 페달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사운드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Cliff가 사망한 이후 Orion은 라이브 공연에서 메들리 형식으로만 연주를 하다가 2006년 8월 15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던 내한공연에 처음으로 완곡을 하였다.

2.1 11~33마디 인트로



[그림 1] Intro Bass

위 [그림 1]은 ‘Orion’의 인트로 부분에 속한다. 인트로는 0:00 ~ 0:57까지이며, 125BPM의 속도로 연주가 진행된다. Fade-In방식으로 곡이 시작되며 Bass가 Overdrive, Reverb를 이용하여 사운드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Cliff가 살아 있을당시, 해당 곡이 라이브로 연주된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

구도 연주기법이나 Chord진행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지만 연구를 해본 결과 E-E-G 코드진행이 사용되었으며 이 진행은 E 파워코드의 I, V 구성음과 동일하며 Octave Harmony를 이용하여 오버더빙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4대 베이스리스트인 Robert Trujillo가 Orion을 라이브에서 연주할때는 E-D-Db 진행으로 인트로를 연주하였다.

2.2 34~37마디



[그림 2] 34~37마디 Bass

인트로가 끝남과 동시에 1마디 Drum Fill-In을 연주 후 Verse-A가 시작된다. BPM은 인트로와 마찬가지로 125BPM으로 진행되며 Bass와 Guitar가 동일한 리듬구성을 공유하며 Em-Bm/D-Ebm/B의 코드진행이 사용된다. 위 [그림 2]를 보면 Bass의 경우 34~35마디에서 E를 연주하게 되는데 높은 E에서는 D에서부터 Hammering-On 연주기법으로 E를 연주한다. 이렇게 연주함으로써 단조로울 수 있는 베이스 라인에 Dynamic을 주어 청취자로 하계끔 풍성한 리듬을 느낄 수 있다.

2.3 Orion 58~61마디



[그림 3] 58-61마디 Guitar Rhythm



[그림 4] 58-61마디 Bass Rhythm

위 [그림 3]을 보면 58~61마디까지 Verse-B에서 굉장히 단조로운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데 Guitar는 A5-E5-C5/C5-E5-A5의 코드진행으로 연주를 하며 이와 동시의 위 [그림 4]의 Bass는 빈틈이 없는 리듬으로 연주가 된다. 이는 심심하게 들릴 수 있는 리듬에서 Bass가 속주를 하면서 Dynamic하게 구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해당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Bass의 소리가 아닌 흡사, 일렉기타의 사운드가 들리게 되어 처음 듣는 청취자들은 기타 속주로 알 수도 있다. 이는, Bass에 이펙터 페달을 걸어놓은 덕분이다. 해당부분만 따로 녹음

하여 편집을 한 것 이며 Bass에 Wah페달과 Overdrive페달을 동시에 작동하여 기타 소리로 헛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일부 악보 제작자들은 해당파트를 기타 악보에 집어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Orion의 Bass Track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4 74~77마디



[그림 5] 74~77마디 Bass

위 [그림 5]를 보면 Verse-B가 끝난 후 Verse-B 와 음 구성은 동일하나 리듬적인 구성이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었다.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사용해서 조금 더 리듬을 쪼개었다. 해당 파트에서는 Guitar와 Bass가 모두 같은 음정의 Riff를 연주하게 된다.

2.5 94~118마디



[그림 6] 110~123마디

Verse-B'가 끝난 후 Verse-A의 코드진행이 그대로 진행됨과 동시에 E마이너 스케일을 이용한 기타솔로가 진행된다 94마디부터 109마디 까지는 [그림 3]와 동일한 리듬을 보여주지만 110마디부터 116마디까지는 [그림 6]와 같이 B5-B5/A-Gb5-E5의 코드진행을 사용하며, 117마디부터 123마디 까지는 Tempo가 느려지면서 E파워코드로 Fade-out이 된다.

2.6 124마디~183마디



[그림 7] 124~131마디 Bass



[그림 8] 168~183마디 Bass

위 [그림 9]을 보면 124마디 부터는 6/8박자로 리듬이 바뀌며 베이스 라인 독주가 시작된다. 이전 리듬과 대비되어 몽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베이스라인이 사용되었고 Gb-A-B-E

루트를 따라 라인이 구성되어있다. 한 Line의 마지막 마디 마다 서로 다른 애드리브를 넣어 지루하지 않게 구성하였다. 그 후 위 [그림 10] 처럼 168마디부터 183마디까지는 Guitar 라인에 맞추어 대비된 라인을 구성하였다.

2.7 184마디~200마디 솔로



[그림 12] 192~200마디 Bass Solo

184마디부터 200마디는 Guitar와 Bass의 Solo타임인데 특이한 점은 기타 솔로가 끝난 뒤 바로 베이스가 솔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192마디 부터 진행되는 베이스 솔로는 얼핏 들으면 일렉기타의 사운드와 매우 흡사하지만 이는 Overdrive페달을 사용한 이펙팅 사운드이며 한 옥타브를 차이에 두고 더블링 녹음을 진행하여 매우 풍성한 솔로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솔로 타임 진행 시 코드진행은 파워코드를 사용하여 A-B-E-Db의 진행을 가지고 있다.

2.8 221~252마디 Outro



[그림 16] 221~252마디 Bass

221마디부터 곡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Verse B'와 동일한 리듬, 코드 구성을 가지고 연주를 하며, 서서히 Fade-Out이 되면서 곡이 끝난다.

3. 결론

본론에서 서술한 그림 자료 및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메탈밴드라고 해서 반복적인 리듬, 코드만 사용하고 난잡한 기타 솔로를 사용한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화성학적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스라는 악기가 단순히 저음역대를 받쳐주는 악기가 아닌 또 다른 멜로디 구성을 하는 악기가 될 수 있으며 베이스에 이펙터 페달을

사용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곡 중간에 Guitar 두 대의 Harmony도 Metallica의 다른 곡들에 사용되는 구성과 매우 흡사하며 이는 다른 곡을 청취할 때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Metal이 단순히 시끄러운 음악이 아닌 서정적이고 다양한 멜로디로 구성되어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Metal 음악에 있어서 Bass의 역할이 단순히 그 음악을 받쳐주는게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멜로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Metallica, 「Master of Puppets」, Polygram Music Publishing Ltd. , Universal M&L UK, 1986년
- [2] Songfacts, Orion, www.songfacts.com/facts/metallica/orion(2022년 10월 13일)
- [3] notreble, Metallica Orion Cliff Burton Recording, www.notreble.com/buzz/2012/10/09/transcription-cliff-burton-orion/(2022년 10월 13일)